중국 경쟁당국(발개위, 공상총국) 주요 집행동향

<주중대사관 박제현 공정거래관>

"발개위, 수입자동차에 대한 반독점조사"등 최근의 주요 집행동향을 알려드리니 **우리기업들은 유사한 사례가 적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**하시기 바랍니다.

< 주요 사례 >

□ 발개위, "수입자동차 업체에 대한 반독점조사"

□ 공상총국, "MS에 대한 반독점조사"

□ 발개위, "일본 12개 자동차회사의 부품가격 독점행위 안건"

1. 발개위, "수입자동차 업체에 대한 반독점조사"

가. 조사배경 및 목적

□ 중국 소비자들은 그동안 고급 수입 자동차업체의 차량 및 부품가격이 외국에서의 동 가격대비 지나치게 비싸다는 불만을 끊임없이 제기함

○ 중국의 CCTV 등 주요 언론매체들의 보도에 의하면, 일부 유럽 고급 자동차의 경우 중국 내 판매가격은 미국보다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,

- 차량 부품가격의 경우, 국제시장의 일반적인 가격수준(3배)보다 최고 12배 이상 높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

< 차량 및 부품가격 예시 >

* (**차량가격**) 재규어 랜드로버의 고급스포츠유틸리티차량(SUV)의 경우 미국에서는 87,000$(약 539,400元)에, 중국에서는 최소 189만元(약 3.5배)에 각각 판매됨

* (**부품가격**) 북경벤츠C급W204차형의 경우, 전체부품가격의 합이 동일한 완성차 (1대) 판매가격의 1,273%로 나타나고 있음

□ 이와 관련, 국가발전개혁위원회(이하 발개위)는 이러한 불만제기에 따라 자동차시장의 경쟁 질서를 유지보호하고, 소비자들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자 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히고 있음

나. 조사대상

□ 이번 조사대상은 10여개 수입자동차업체(특히, 고급호화브랜드), 부품 생산기업, 판매업체로 파악되고 있음

○ 다만, 그동안의 조사가 고급 수입자동차 브랜드에 집중되고 있으나, 대중 자동차 브랜드 등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음

다. 조사내용

□ 발개위는 자동차(완성차) 및 부품에 대한 반독점조사를 2011년 말부터 시작한 것으로 밝히고 있음

□ 이와 관련, 발개위는 크라이슬러(CHRYSLER) 및 아우디(AUDI)에 대해서는 이미 법 위반사실이 확인되었으며, 벤츠(Mercedes-Benz) 등에 대해서는 입증자료 확보를 위한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히고 있음

○ (**크라이슬러, 아우디**) 그동안 상해시 발개위는 미국 크라이슬러 자동차에 대해, 호북성 물가국은 독일 아우디에 대한 조사를 각각 진행하였으며,

- 현재 양사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단계에 있으며, 이미 법 위반사실이 확인되어 가까운 시일 내에 위법정황에 따라 상응한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음

○ (**벤츠**) 지난 주 강소성 반독점분국은 소주·무석 등 5개 도시의 벤츠 판매상(즉, 딜러)에 대해 반독점조사를 실시한데이어, 8월4일 상해시 발개위와 강소성 물가국 소속 반독점국은 동 회사의 상해사무실을 합동 조사하였으며,

- 현재 독점행위존재여부 확인을 위한 입증자료를 조사하고 있음

라. 관련업계의 반응

□ 조사대상 업체들은 이번 조사 후, 발개위 조사에 협조하고 자진 시정하는 모습을 보이는 차원에서 차량 및 부품가격을 인하하거나 인하계획을 발표하고 있음

마. 법 위반혐의

□ 발개위는 구체적인 법위반혐의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있으나, 언론보도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,

ㅇ 시지남용에 의한 불공정한 고가판매나 거래과정에서 각종 불합리한 거래조건을 부가하는 행위 또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 소지가 높은 것으로 보임

- 즉, 수입자동차 및 그 정비가격이 외국보다 높게 형성되는 주된 원인은 자동차 공급업체의 판매상에 대한 재판매가격유지(특히, 최소판매가격유지행위)영업정책 및 각종 불합리한 거래조건(예, 지역 및 고객제한, 끼워 팔기, 차량판매 후 자사부품의 배타적 공급 및 고가책정, 상벌시스템 운영 등)을 강요하는 유통체계(4S店)에 기인한 것으로 보고 있음

2. 공상총국, "MS에 대한 반독점조사"

가. 조사내용

□ 공상총국은 2013.6월 관련기업의 신고에 따라 MS에 대한 반독점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데, 언론에 보도된 구체적인 조사경위는 다음과 같음

ㅇ (2014.7.28) 공상총국은 MS회사의 중국 내 4개 경영 장소(즉, 북경, 상해, 광주, 성도)를 동시에 급습 조사하였음

ㅇ (2014.8.4) 공상총국은 MS본사의 부총재 일행을 면담, 반독점조사 관련 질문을 하는 한편, MS회사에 대해 중국법률을 엄격히 준수하고 본 조사를 방해치 말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보장하도록 엄숙히 통고하였음

- 이와 관련, MS는 공상총국의 조사에 전면적으로 협조하기로 승낙함

ㅇ (2014.8.6) 공상총국은 4개 성시(즉, 북경, 요령, 복건, 호북)의 공상 법집행인원으로 구성된 조사팀이 MS회사의 중국 내 1개 경영 장소 및 1개 기타유관장소(예, 본사 미조사부서, 회사재무 하청업체)를 동시에 급습 조사하였음

나. 법 위반혐의

□ 공상총국은 현재까지 구체적인 법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으나, 언론보도 등을 종합해 보면,

ㅇ 시지남용에 의한 끼워 팔기나 거래과정에서 각종 불합리한 거래조건을 부가하는 행위*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음

* (예) MS의 Windows 운영체계와 Office 사무용소프트웨어 관련정보를 완전히 공개치 않음으로써 조성된 겸용성 문제, 문서검증 등의 문제

3. 발개위, "일본 12개 자동차회사의 부품가격 독점행위 안건"

□ 발개위는 일본 재규어 랜드로버(JAGUAR LAND ROVER) 등 12사의 자동차 부품 및 베어링가격 독점행위에 대한 조사가 이미 완료되어, 장차 법에 의거 처벌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음

* 언론보도에 의하면, 중국의 일본 자동차부품 수입규모는 2013년 전체 수입액의 27% 수준이며, 그동안 대일본 의존도 심화에 따른 가격횡포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남